

권영세 안동시장, 민선 6기 1년 성과 및 시정방향



안동시 (시장 권영세)는 도청이전과 더불어 명품도시 건설과 도시공간 재창조를 통해 활력 넘치고 역동적인 행복 안동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문화의 중심지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 특히 등록이 되어있는 안동시는 오는 10월, 경북도청이 이사 오게 되면 소재지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 경주 다음으로 많은 308점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18년째 개최해 오고 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난 5월27-31일 중국 하이난성 쑤안시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총회에서 축제 이벤트 부문 '베스트어워드'를 수상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받아 지구촌 축제 로 자리매김 하였다.

투자유건 개선과 함께 경북바이오 산업단지를 88%이상 분양하는 등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권 시장은 ①7대 분야 50개 주력사업추진, 더 큰 안동 실현 ②명품도시 신도시 건설 ③세계문화 수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 ④눈과 귀로 즐기는 실경뮤지컬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부가 ⑤안동대도호부 옛 명성 되찾는 도시 재생사업 ⑥핵심 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육성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⑦FTA장벽 뚫는 친환경 농업육성 ⑧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예산 확대 ⑨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시민들 소리 경청) ⑩질서, 청결, 친절, 청산 4대 운동. 또한 신도시 대우건축 개회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뤄 내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리더십 대상을 수상하는 등 박사다학한 CEO로, 행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제7대 안동대 권태환 총장 취임식

국립안동대학교는 지난 6월26일 오전 10시, 안동시 안동대 국제교류관 대회의실에서 교수, 직원, 학생 등 총10,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안동대 권태환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안동대 총무와 신현근 계장의 사회로, 이종은 교무처장의 약력 소개에 이어 권태환 신임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함께 자리해 준 교수, 직원, 학생, 우리대학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30여년 동안 교직을 천명(天命)으로 여기며 국가동량을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음에 감사하고 부족한 능력이지만 대학과 국가사회에 질박(質朴)한 봉사의 보람도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본인의 모든 삶의 바탕이 이 대학에 뿌리 두어 왔다는 점에서 안동대로부터 누린 혜택에 대한 보답의 방편으로 삼고자 굳게 다짐한다고 말했다.



△지난 6.26 제 7대 안동대 총장 취임식에서 권태환 박사 취임사를 하고 있다. (왼편은 권태환 총장)

리더십으로 조직에너지 집중시켜 청년대학 안동대 발전 매진 ⑨안동대를 강한 대학, 지역, 국가사회에 봉사 ⑩선도적 연구강화, 창조적 교육 인성 융합형 인재양성과 인적 몰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으로 교학대동 안동대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적극적으로 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취임사를 피력했다. 이어서 교수회평위원회 윤석수 의장, 직원협의회 권영동 회장, 학생대표로 안동대 회계학과 정희학 학생이 권태환 총장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교가 제창 후 행사를 모두 마쳤다.

경영학과 회계학과의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3월 국립한동대 사회과학대 회계학과 교수로 교육계에 입문해 안동대 사회과학대학장, 행정대학원장, 구조개혁 추진 TF 위원장, 교무처장을 거쳐 현 안동대 경영재정협의회 위원장으로 금번 제7대 안동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주요 경력으로서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회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장, 학교법인 잠춘학원 이사, 한국국학진흥원 이사 등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으며 30여년간 '국립안동대 맨'으로 재직하면서 한 길을 걷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안동대 장기 추진계획으로서 ①향후 10년간 대입정원 16만명 감축(구조개혁) ②7년 연속 등록금 동결과 인하 ③앞으로 안동대 조직문화 창달 주력 ④소통과 대화문화 확립 ⑤현실 문제를 극복 몰입 ⑥실현하는 공동체 의식 확산 ⑦구성원들의 행복 최대화하는 시스템구축 ⑧진정한

한편 권태환(權泰桓) 60歲 북야공파 33世 총장은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원

〈권혁세 기자〉

능곡회 제29.30대 회장단 이·취임식

능곡회(陵谷會 : 회장. 권순창)는 2015년 제29.30대 신.구 회장 및 임원이. 취임식이 7월 8일 오후 7시 안동시 송현동 봉화초등학교 2층 <목향> 회의실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권계동 안동권씨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주연 안동종친회장, 권영세 안동시장, 권영택 능우회 회장,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광택. 권남희 안동시 의원, 능곡회원 및 부인회원, 능우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광림 국회의원과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축전을 보내왔다.



△능곡회 이취임식(왼편은 신임권기락회장)

권기춘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모소망배, 내빈소개, 우대회원 선물전달, 공로패 전달, 신임회장단 및 임원소개, 신임회원 입회선서 등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29대 권순창 회장은 이임사에서 "회장의 중책을 맡고 그동안 모든 회원들이 협조하여 준 덕분에 임기를 무사히 마쳐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전국체육대회, 고백음악회 등 보람된 일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서 30대 권기락 회장은 취임사에서 "능력이 부족한 저가 중책을 맡게되어서 어깨가 무겁다"며 능곡회가 3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뿌리가 깊으면 근본이 마르지 않는다는 근심원고(根深源枯)의 고사성어를 인용하여 우리 권문도 1,088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면서 명문거족이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능곡회 발전을 위하여 "첫째 회원 단합

과 친목도모, 둘째 젊은 세대를 위하여 보학강화, 정신교육 함양, 예절지도 등을 숭신수범토록 하고, 셋째 대중원 산하 유관단체와 협조하며 시조촌, 추향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능곡회의 위상을 높이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는 권문이 주축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마치 집에 온 것처럼 친근감이 들고 흐뭇하다. 서로 끌어주고 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능곡회의 기본정신인 태사공 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고 앞으로는 단합과 화합의 미덕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기대하며 저도 모두가 꿈꾸는 "더 큰 안동, 더 큰 미래"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주연 안동종친회장과 권영택 능우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능곡회가 시조님 춘, 추 향사때 제물봉송을 하는 등 어느 회(會)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칭찬했다. 축사가 끝나자 권기락 회장 등 신임 집행부 임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권택기 전 국회의원등 9명은 능곡회 신입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일이 자기소개를 하였다. 1부 행사가 끝나고 2부 행사로 화가에야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우산 1개씩 선물을 주었다. 신임 권기락(權奇樂 : 36世 정조공파)회장은 경안고, 안동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철도공사(KORAIL) 경북본부 안동역에 근무하고 있으며 성우한우농장도 경영하고 있다. <보도부장 권영건>

동정



▲권순성 대종원 부총재는 미국 9월 11일 테러와 마라톤 대회 테러성금 지원과 주한 미

대사 테러 위로 등 대미관계에 후조적 역할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금상을 수상하였다.

▲권영진(대구시)권선택(대전시장)은 지난 7월 13일 통일나눔재단(이사장 안병훈) 통일나눔펀드 기금을 기필로 약정했다.

▲권오을 새누리당 인재영입 위원장(안동 3선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일 저녁,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에서 가진 최고 관리자와정 초청강의에서 안동과 예천은 통합되어야하며, 이 경우 명칭은 '안동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권오성(비바스포츠타)는 지난 7월 7일 통일과 나눔재단(이사장 안병훈) 주최

로 열린 통일나눔펀드 출범식에서 1천만원을 내기로 약정했다.

▲재단법인 KBS 교향악단 이사장에 권영민(72)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선임됐다.

▲동아일보는 지난 7월 1일 오피니언 제29기 객원논설위원으로 권영민(단국대 석좌교수, 문학평론가)를 선정했다.

권문동상 탐방기 ⑥

■ 권영혁(백송한약방 대표)

권기수 (權基洙)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동상(銅像) 건국훈장(建國勳章) 애족장(愛族章) 1989년 1월 21일 강릉에서 출생. 의병 소은(素隱) 권인규 의사의 손자. 의병 성파(桴坡) 권중해의 장남 장하도다 3대의 순국 국가 유공

자(독립운동가)집안이다. 1919년 3.1 독립운동 때에는 독립선언서를 받아보고 동지들과 함께 영월, 평창, 정선지역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해 일경에서 체포되어 무수한 고문을 당하고 실형을 받아 함흥감옥에서 수년간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槐雲칼럼

징비록(懲毖錄)과 유비무환(有備無患)정신

KBS 주말 대하사극을 보면서

■ 槐雲 權海光(한국인보평론가협회 부회장)

槐雲 權海光(KBS 주말 대하사극(大歷史劇) '징비록'이 2월14일부터 50부작으로 방영되고 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당시 전시총사령관 격인 영의정 겸 도체찰사였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이 공직에서 물러나 향리 하회(河回)로 돌아와 임진왜란 당시 내외정세와 전란의 자취를 반성하며 남긴 기록으로 국보 제 1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선조국왕(김태우 역)과 주인공 류성룡(김상중 역)의 역할, 광기를 발동하는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김구철 역), 중국 명나라 황제 민력제의 거만한 모습들이 시청자를 유혹하고 있다.

징비록은 시경(詩經)에 나오는 '내 지난 일을 징계하여 뒤에 근심이 없게 하라'는 뜻의 '予其懲而後懲'의 말을 따온 것으로 임진왜란을 교훈삼아 후일 우환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번 KBS의 '징비록' 방영은 국민들에게 유비무환의 호국정신을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늘의 국내정치도 정쟁이 계속되고 국민들의 갈등과 이념대립으로 국가의 구심점을 잃고 사회는 극도로 불안하다. 여기에 북한의 위협은 날로 극심하며 한일관계도 최악의 상태인데,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투자은행(AIB) 가입문제 등 미국과 중국의 이권싸움에 끼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도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시점에 징비록의 본뜻인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재확인하여 국가안위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본드라마가 8월까지 계획되어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전반부 내용을 보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전쟁대비도 않고 기축옥사(己丑獄事) 등 봉당(朋黨)싸움만 하는 국내 정치상황과 조선침략을 서둘러 있는 일본, 안하무인격의 거만한 중국을 보면서 좌금의 국파와 정세와 너무나 흡사하다. 그리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왜군의 침략을 받아 초전에 속수무책으로 패전하는 전황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앞으로 많은 배역들이 등장하겠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첫째, 정쟁을 없애고 전투태세를 완벽해야한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공격징후가 있었지만 대책이 미흡했다. 당시 동인과 서인의 정쟁이 극심하여 통신사로 일 본을 정탐해온 정사(正使) 서인 황운의 전쟁 대비 필요성에 백성들을 현혹시키다며 거부당하고 집권당인 부사(副使) 동인 김성일의 말만 듣고 이윤곡의 10만 양병설도 무시되어 무능하고 훈련은 나태하여 전쟁준비가 늦어졌다. 그 결과 전쟁발발 며칠만에 왜군에게 부산, 충주를 거



△ 권기수 독립운동가상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 되었다.



△ 권기수 독립운동가상

쳐 서울, 개성 평양의 세 도읍까지 함락 당했다. 전쟁 초기 군사도 식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류성룡은 황급히 곡식을 사들여 군량미를 채우고 굶주린 백성을 구했으며,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직업 군인을 양성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다. 또한 면첩법(免摺法)을 실시하여 군대에 지원해서 공을 세운 노비는 양인으로 신분올 올려주면서 병력을 확충하였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는 국가안위를 위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 전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둘째는 외교력 강화다. 남북,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 한중관계 발전이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의 탐바구니에서 많은 갈등과 시련을 겪었다. 임진왜란도 일본과 명나라의 이권싸움이었고, 당시 심우경(沈維敬)이 조선을 반분하여 한강 이남은 일본에 주고 이북은 중국이 지배하자는 '분할역치(分劃易治)'방안은 오늘날 중국의 대북정책과 맞닿아 있다.

셋째는 지도자의 소명 의식과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이다. 왜군이 공격하자 순찰사 김수는 부하를 도망치게 했고, 이일 장군은 상주에서 관모를 버리고 도망갔으며, 선조 아들 임해군은 포로가 되자 풀려주면 한강이 남 땅을 일본에 주겠다고 하였으며, 선조도 명나라에 합병을 요청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다. 선조가 명나라로 망명을 고민하자 대가(大駕)가 우리 국토 밖으로 한걸음만 떠나면 조선은 우리 땅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류성룡의 말은 지도자의 소명 의식

서울청장년회 월례회



△서울청년회 월례회에서 권순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청장년회(회장 권순호)는 지난 7월 9일 (목) 19시에 동대문구 왕산로22길 11(용두동) 안동권씨대종원 인근 남해 장어나라 식당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 진행은 순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始祖)님 명배에 이어 승호 회장의 개회사로 "월례회

는 지난 달 초에 계획하였는데 '메르스' 관계로 오늘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제27회 안동권씨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가 정주에서 성대히 잘 진행되었고, 아울러, 이날 청장년회 회장단 회의를 서울 당회가 내내28회(대구), 29회(합천), 제30회 2018년인 3년 후에 서울에서 주축하기로 정해졌으니 성

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아 힘쓰자"고 하였다.

이러 사무국장의 월례회 결과보고 후 공지사향으로 대종원 범준홍보부장이 공지사향으로 "본인 장남 훈례를 전국 권문에서 따뜻한 성원속에 잘 치루어 감사드리며 6월 27일 마포공덕 경찰공제회관에서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의 장남 훈례에 많은 하객과 특히 서울청년회 회원,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안동에서는 8월 22일 (토) 복회가 예정이니 많은 참석이 요망됩니다." 라고 공지하였다. 이어 신입회원 소개로 권영호 부회장의 안내로 권희주(추밀공파.35世.대우증권/서조구)딸레(48) 회원의 소개 및 인사했다. 기타, 토인안건으로 차기 전국체전 연락사무소 및 회 수익사업을 서울 청장년회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종원 당회가 내내28회(대구), 29회(합천)를 이용했으면 하는 토의가 있었다. <권범준 홍보부장>